

[보잉] 라이언에어 737NG 창문 파손 사고서 조류 잔해 발견 - MAX 감항지시와 별개, 안전 헤드라인 리스크 누적



26.08.14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라이언에어 737NG 서 조류 잔해 발견, NTSB 조사중
- MAX 좌석 결함 감항지시와는 별개 기종·사안
- 재무 영향 제한적, 안전 헤드라인 리스크만 누적

7월 그리스에서 이륙 직후 라이언에어 소속 보잉 737NG(Next Generation) 여객기의 엔진 일부가 떨어져 나가 창문을 파손시키고 승객이 창문 밖으로 반쯤 빨려 나가는 사고가 발생, 기체가 감압되며 독일행 비행이 긴급 회항한 바 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3일 해당 기체에서 조류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조류 충돌이 엔진 손상과 창문 파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온 셈이다.

이번 사고 기체는 우리가 하반기 리스크로 짚어온 737 MAX 좌석 결함 감항지시(FAA, 7월 28일, 453기 대상)와는 별개의 기종·별개의 사안이다. NG는 MAX 이전 세대 기종으로, 조사가 제조 결함이 아니라 조류 충돌이라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커지면 보잉의 설계·품질 책임으로 직접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항공기 안전 관련 헤드라인이 짧은 기간에 반복되는 흐름 자체는 부담이다. 최종 원인이 조류 충돌로 정리되더라도 승객이 창문 밖으로 빨려 나갈 뻔한 사고라는 사실은 항공사·규제당국의 대응, 여론 악화를 자극할 수 있다.

재무적으로는 이번 사고가 보잉 손익에 직접 연결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NG는 이미 단종된 기종으로 신규 생산·인도 물량과 무관하며, 조사 결과가 조류 충돌로 확정되면 책임 논의의 무게가 항공사나 엔진 제조사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원인 규명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고, 최근 이어진 737 계열 안전 이슈 누적이 시장의 품질 신뢰도 평가에 계속 부담을 주는 구도는 유지된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소식 자체로는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MAX 감항지시와 겹치며 안전 이슈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NTSB 최종 조사에서 조류 충돌과 엔진·창문 손상 간 인과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그리고 이번 사고가 737 계열 전반에 대한 추가 규제 조치로 확산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항목	FY Dec-24	FY Dec-25	FY Dec-26 (E)	FY Dec-27 (E)	FY Dec-28 (E)
매출 (Revenue)	66.52	89.46	98.21	112.81	123.44
↘ 증가율	-14.50%	34.50%	9.77%	14.87%	9.42%
매출총이익	-1.99	4.29	12.45	17.97	22.80
↘ 마진	-2.99%	4.79%	12.68%	15.93%	18.47%
EBITDA	-8.87	6.23	4.40	8.62	12.53
↘ 마진	-13.34%	6.97%	4.48%	7.64%	10.15%
영업이익 (EBIT)	-10.71	4.28	2.13	6.16	10.02
↘ 마진	-16.10%	4.79%	2.17%	5.46%	8.12%
순이익	-13.18	-4.99	-0.64	3.19	6.51
↘ 마진	-19.82%	-5.57%	-0.65%	2.83%	5.27%
EPS	-20.38	-6.54	-0.95	3.85	7.91
↘ 증가율	250.77%	-67.91%	-85.43%	-504.07%	105.30%
잉여현금흐름 (FCF)	-14.31	-1.88	2.45	6.14	9.88
P/E	—	87.6x	—	60.0x	29.2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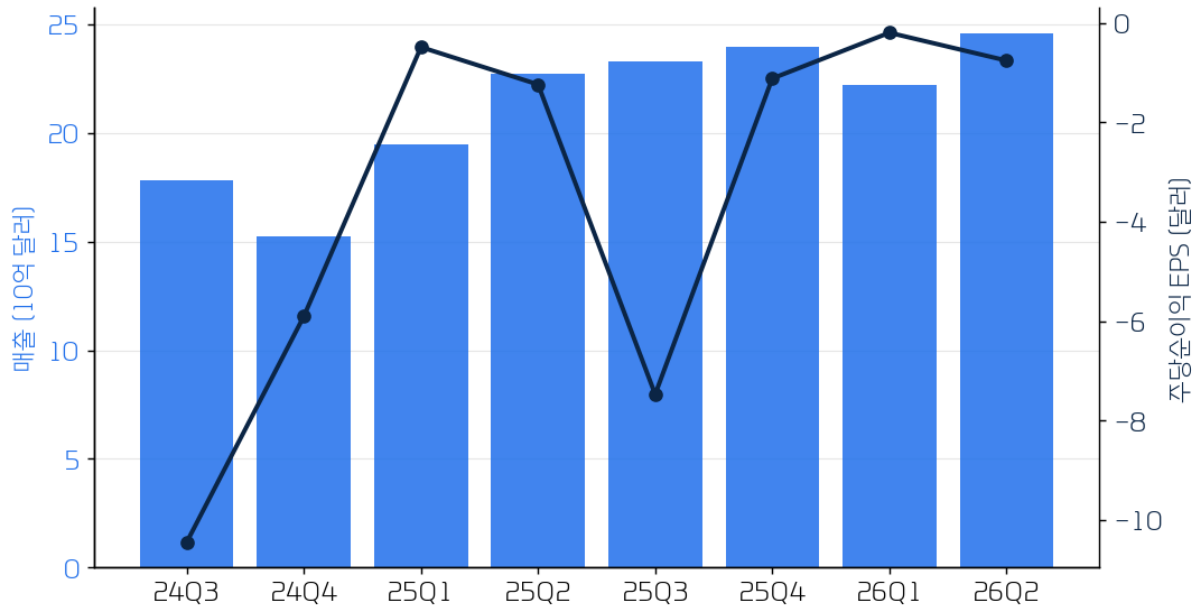
참고 차트

BA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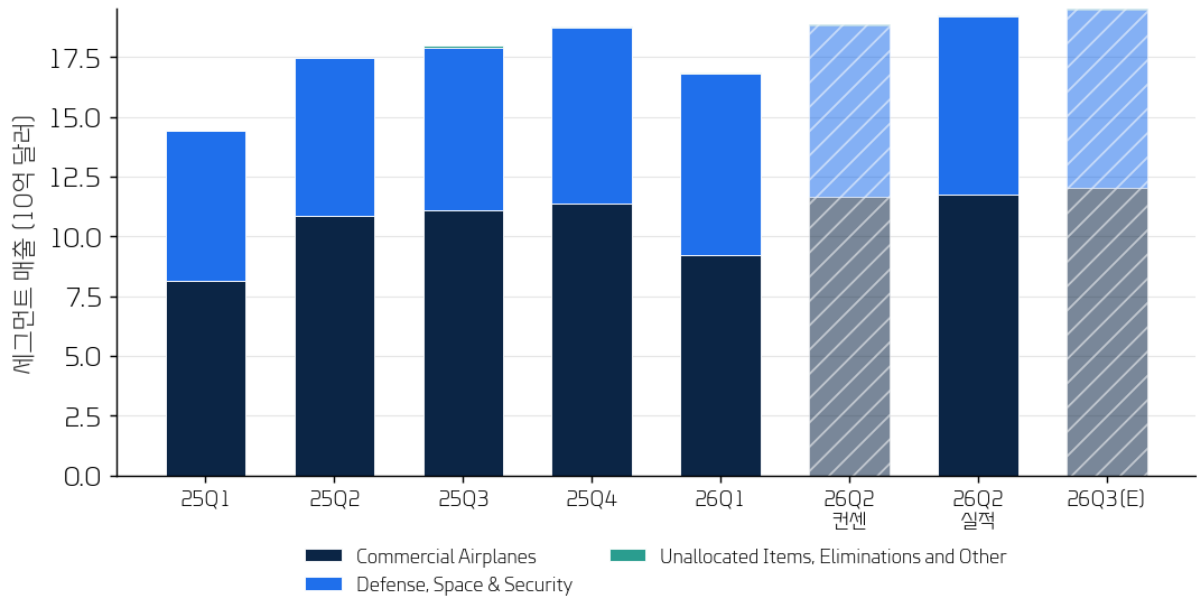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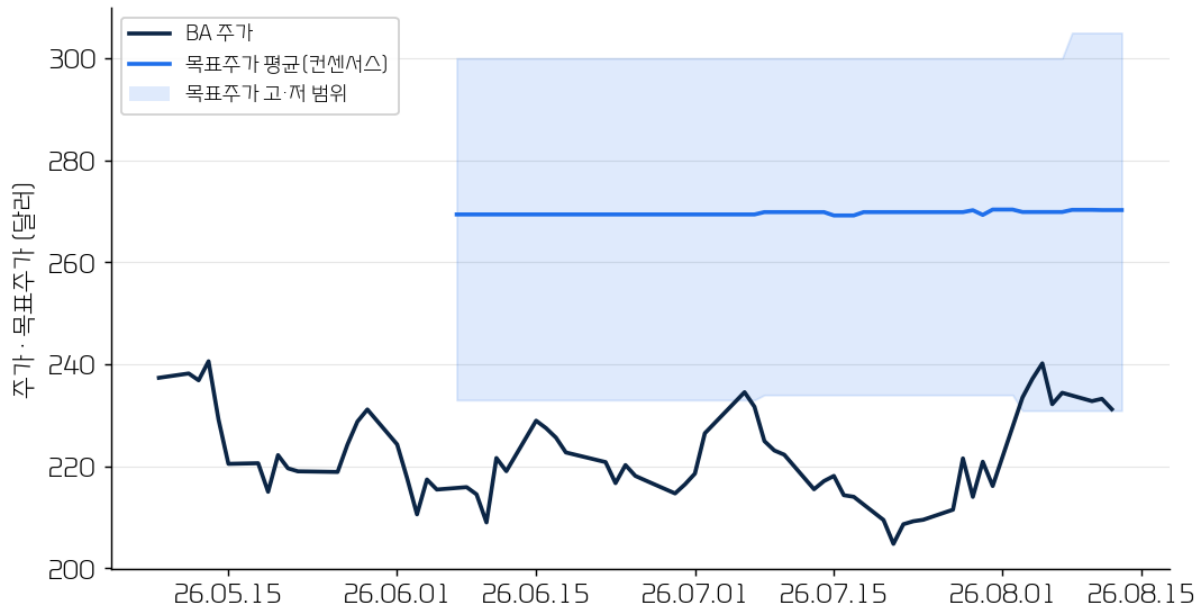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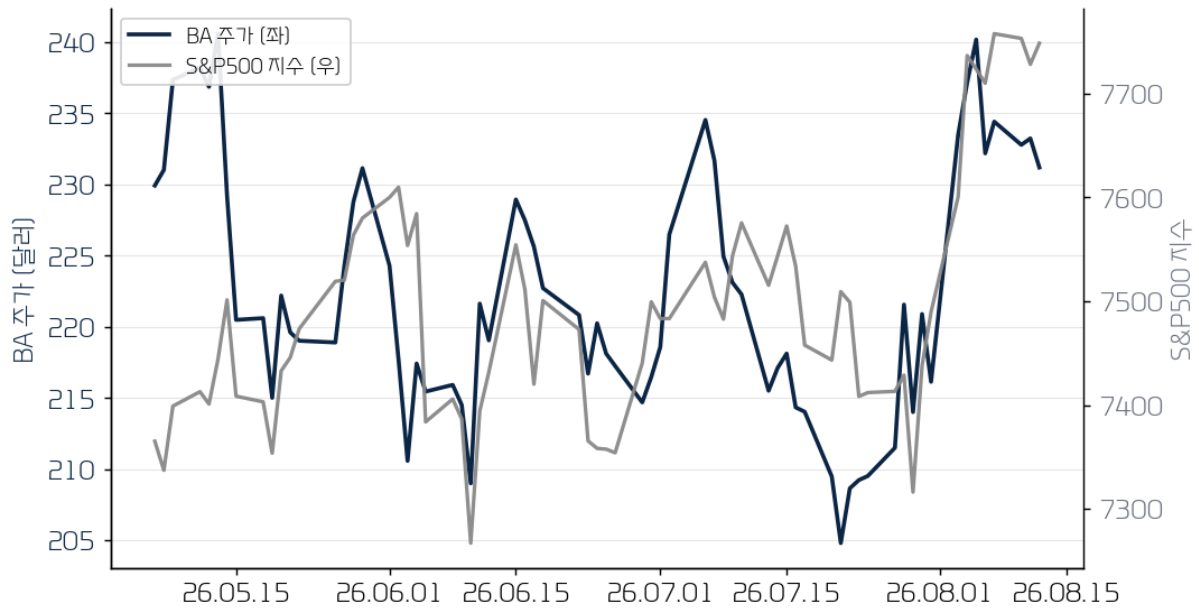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